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살다 보면 저절로 되는 일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일이 이뤄진다. 전라도닷컴에 2년 6개월 동안 연재된 한송주 글, 이상호 그림의 '산사, 서른 개의 화두-저절로'가 출판돼 오월미술관에서 원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저절로'라는 책은 서른 곳의 전라도의 절을 다니며 사찰에 대한 감흥을 그림으로 그리고, 장소마다 갖는 이야기를 글로 쓴 서른 곳의 사찰 순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오월미술관 '저절로' 전시에 걸린 그림들은 그야말로 정성과 불심이 가득한 이상호 화가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지구정성이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는가. 오피니언에는 광주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 150여 명이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책에 저자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어쩌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트라우마

저절로 되는 일

를 치유한 화가 이상호와 늘 취해있는 천재적인 글 작가 한송주 선생이 만나 남도 사찰을 떠나게 됐을까? 궁금했다.

"2년 6개월 전이네. 송주 형이 문득 보고 싶어 단골집 급정식당에 갔는데 술에 취해 자기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글 잘 쓰는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전라도닷컴'을 찾아가서 한송주 글 좀 쓰게 해주쇼. 전라도 사찰기행을 연재하자고 내가 제안했더니, 글은 나보고 삽화를 그리라는 것이여. 그래서 하게 된 거제. 연민으로 시작했어. 연민."

이상호 화가는 이렇게 말하며 이상하게 그림이 저절로 그려져서 먼저 그림이 나오면 저절로 글이 따라 나오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후배 이경용씨가 나서서 운전을 해주 남도 사찰 서른 곳을 절로절로 저절로 다녀왔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상호 화가는 전시장을 찾아온 사람들 한명 한명을 소개해야 한다고 기록하다가 50명까지 적고 물밑듯이 들어와서 모두 이름을 불러주며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다. 그의 인사말이 인상적이었다. 나주 정신병원 주치의 강진상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지금 생각나는 단어 하나를 말해보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금부터 수신만 생각해!"라는 주치의의 말이 화두처럼 꽃혀서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오월어머니집을 만든신 안성례 선생님은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이상호 화가를 만나면 "미친 놈처럼 돌아다니는구나?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사람이!"하며 호통치고 아들로 삼았다고 했다. 안성례 선생님은 어머니처럼 "저녁에 났다. 같이 밥 먹자!"하며 가까이서 챙겨주셨다면 지금 살아계셨으면 무슨 다 오셨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월미술관 바로 옆 5층 빌딩 흰 벽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대표적인 노래, 이매진을 부른 존 레논의 얼굴이 대형 벽화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저절로' 전시 중 그 벽화가 이상호 화가의 눈에 들어왔고 '이제 저 벽에 존 레논 대신 오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이 그려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제안했다. 그 제안에 신명이 난 사람들이 모였고 윤상원 벽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 일도 제안자가 그리기로 했다. 올해 5월 중 존 레논 벽은 '윤상원 벽'으로 바뀔 것이다. 제안자인 이상호 화가의 손에서 저절로 그려진 윤상원 열사의 모습을 이종배 그래픽아티스트가 대형 벽에 옮겨 그리기로 했고, 추진단이 꾸려졌다. 저절로!

社說

행정통합 초기 비용 떠넘기는 중앙부처 가당키나 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당장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무안·전남 동부청사 재배치, 정보시스템 통합, 공공시설물 정비 등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축'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출범을 앞둔 제1호 광역단위 통합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전남도는 연일 정외대, 국회, 주무부처를 찾아 실질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경 반영을 위해 광주시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시·도가 건의한 573억원 가운데 177억원 만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예산처의 행보도 이해하기 힘들다.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한 것이다. 다행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되살려 예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바,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내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액 추경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돼

야한다는 입장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의 바람을 외면한 채 무늬만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공백, 민원 서비스 혼란이 예측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위한 국책 사업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미래 비전이다. 국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갈매투 투자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자치법' 제4조와 지방분권규범 제50조에도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7년부터 투입 가능한 20조원의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순역지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을 위한 예산 마련도 여의치 않다. 중앙부처는 특별법 특례를 놓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했다. 재차 강조하지만 경성비 명목인 통합 비용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안정적 기틀을 위한 최소한의 입학금과 같다. 떠넘기는 모양새 여신 안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간곡한 요청을 더 물리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뗀 기독교기지·환벽당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교선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가로부터 심도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유산청은 전략적인 등재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공모를 실시했다.

사전자문을 거친 유산은 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를 면제받는다. 세계유산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탁월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경북도 경주시의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울산시 울주군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15번째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건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 설정으로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독교선교기지는 남구 양림동 원림의 오원기념각·우일선 선교사 사택·묘역을 망라하고 있다. 문맹을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움으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적·사상적 토대로 인정받는다.

별서정원과 원림에는 환벽당·취가정, 담양 소쇄원·식영정 등을 포함한다. 15-16세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조성한 문화경관으로 우수성을 자랑하며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모두 유네스코 목록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 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의 공동 추진 지자체와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선정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다. 유네스코 등재가 본격화했다. 통상 10년 가량 소요된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최종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문화난장



김현희
전시기획자·작가

전시 '이원동근의 정원'을 보고서

온 시간들. 나 역시 한 갈래에서 나뉜 그 뿌리 위에서 서 있는 사람이다.

벼루에 물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먹을 갈던 시간, 번져 나가던 검은 빛과 은은한 묵향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먹을 가는 일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고, 붓을 드는 순간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 법과 기다리는 힘을 배웠다.

'이원동근(異源同根)'. 뿌리는 같지만 자라는 방향은 다르다. 1987년 제1회 정기전을 시작으로 2025년 제28회에 이르기까지, 광주 예술고등학교 한국화 전공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예맥회는 같은 배움에서 출발했지만 각자 다른 시대를 살며 제마디의 길을 만들어 왔다.

이 전시의 제목은 오래 생각하게 한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어쩌면 이 물음은 예술가만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다. 전시는 모두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전시실 '스머드는 색의 풍경'에서는 여러 번 쌓아 올린 색의 층이 시간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다. 서로 다른 색들이 조용히 스며들며 하나의 장면을 이루고 있고, 그 모습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제2전시실 '떡빛의 사유'에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진다. 나는 그 공간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 먹의 농담과 변질, 선의 흐름이 화면을 이끌고 있고, 그 속에서 오래전 나의 시간을 다시 만나는 듯하다. 먹향을 좋아해 시작했던 마음, 여백을 남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털어내야 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조용히 되살아난다.

3전시실 '응축된 이미지의 장'에서는 전통적인 표현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었다. 서로 다른 표현들이 한 공간 안에서 어우러지며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세 공간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작품마다 한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고, 함께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느껴진다.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돌보고 계절을 견디며 비로소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예맥회의 시간이 그랬고, 우리 각자의 삶도 그러하다. 이제는 빠르게 자라는 것보다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시장 문을 나서자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짧게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지만, 뿌리는 남는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 정원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또 하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봄날은 아름답다. 바로 오늘이다.

독자투고



김병석

마약 도시만의 일이 아니다

회에 뿌리 깊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줘 다시 한번 충격을 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마약 유통,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이제는 도시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고 군단위 시골은 물론 심지어 섬마을에까지 확산했다는 점이다.

물론 시골에는 예전부터 양귀비를 민간 약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몇주 기르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있었지만 도시에서와 같이 주사기를 이용한 주입 등 마약을 직접적으로 투약하는 수법의 범죄는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sm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의 유통이 더 쉽고 다양화되고 우리 보다는 마약이 흔했던 일부 동남아 외국인들의 유입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지역을 가리

지 않고 있는 추세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러한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며칠 전 서울경찰청에서는 강남, 용산 등 유흥가를 일대로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섰다. 뉴스도 나오며,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군단위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시기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마약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들까지 삶을 파탄시키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경찰 단속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마약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으로써 나와 가족, 이웃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때이다. (창흥경찰서 수사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오체투지

오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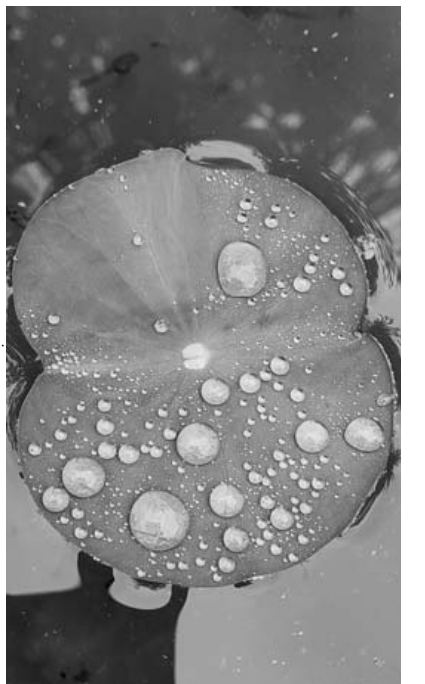
실핀 같은 비가
밤새워 가슴을 내리친 시간들
이슬 맺힌 자리마다 다 사랑이다

아름도 쌓고 쌓다보니
보석하나 되는 것을

※ 시작노트

살다보면 피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밤새 가슴을 헤집는 실핀 같은 통증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젖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리에는 반드시 눈부신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에 맺힌 눈물도 내일은 가장 아름다운 광채가 될 것입니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예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